광주지법 "전남도-경남도간 해상경계 존재"

어업인 조업구역 분쟁 종식될 듯

여수시 항소심도 승소

해상경계구역이 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져 어업인들 간의 조업구역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도간 해상경계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법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잡은 부산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해상경계)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A호 선주는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8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1심 판결이 내리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동안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국토 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해상의 도서에 대해서만 관할 행정구역을 표시할 뿐 해상의 경계 표시는 없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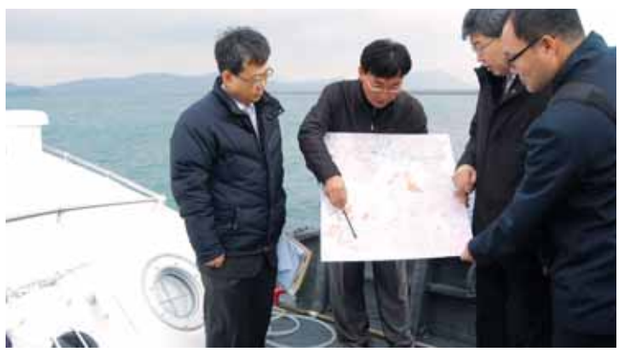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남도와 경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8월 24일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여수시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법복 벗고 바다로 간 재판부

서울고법, 환경소송 심리 앞두고 고흥만서 현장검증



서울고법 민사8부 홍기태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26일 고흥만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제기한 환경소송과 관련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배에 올라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어민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 홍기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고흥만(득량만) 방조제 담수 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26일 직접 현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고흥만 방조제 도덕면 쪽 고흥만교 근처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원·피고 측 대리인은 고흥반도 상세 지도를 펼쳐놓고 배수갑문 담수 방류의 영향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열띠게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와 대리인들은 30t짜리 행정선 '전남 203호'에, 지역주민 10여명과 취재진은 9.7t짜리 관광선 '갈매기호'에 각각 승선해 약 1시간30분 동안 고흥만 앞바다를 돌아봤다. 인공습지, 하수처리장 등에도 들렀다.

"최고의 어장이 최악으로 변했다", "피조개·키조개·제사꼬막 할 것 없이 잘 잡히는 조개가 하나도 없다"는 등 피해를 본 어민들의 실감나는 증언이 쏟아졌다. 전도원(47) 남암 어촌계장은 "맛난 능성어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며 "농부가 거름이 부족해 황폐화한 밭을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도 바다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방문하는 내내 긴장한 표정을 풀지 않고 어민들뿐만 아니라 고흥군 관계자 등 피고 측 입장까지 귀담아듣는 모습을 보였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보부상 길' 걸으며 편백 향기 맡는다

보성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지난 24일 한국차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보성군 산하 전 공직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가족 한마음 대회를 가졌다.

군은 올해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및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등 성공적인 개최와 2012년 정부 종합평가 전국 1위, 2012년 전국 우수해변 선정, 2012년 최우수 지방자치대상 등 32개 부문 3억2800만원 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군 공직자와 가족들은 다양한 게임을 하고,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 길' 개통식 걷기행사를 가졌다.

'보부상 길'은 활성산성의 가파른 비탈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방어할 때를 체험하고, 해안가 주민들이 곰재장(웅치)과 보성장에서 물물교환을 하기위해 무거운 봇짐을 메고 오갔던 옛 정취도 느껴보고 걸으면 절로 편백 숲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녹색길이다. '보부상 길'은 201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전체노선 10.2㎞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보성소리 득음길'(34㎞)와 연계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그물서 조기따기 '진풍경' 26일 목포항 부두에서 조기를 따는 이색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조기가 많이 잡히면서 유자망 어선들이 그물째 싣고 입항하면서 목포항에서 조기따는 육상 작업이 일상화됐다. /연합뉴스

여수 애양원 '한센 기념관' 첫삽

40억 들여 내년말 완공

오는 2013년 여수 애양원에 한센인들의 의료 박물관격인 '한센 기념관'이 만들어진다.

여수 애양원은 26일 애양원 역사관 잔디밭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한센 기념관은 여수시 율촌면 애양원길 195번지에 40억 원(국비 20억·자부담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사무실·전시실·수장고·세미나실·멀티 미디어실 등 1360㎡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연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김충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센기념관 기공식을 계기로 손양원 목사 유적지와 기념관 확충을 통해 애양원 일대가 세계적인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애양원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순교지가 있는 곳으로, 한센병 환우 시설이다.

416.6㎡ 규모의 2층 석조 건축물로 지금의 현대식 병원이 세워지기 전까지 병원 본관으로 사용되다가 한동안 양로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1999년 개·보수해 애양병원 역사관으로 만들어 보존해 오고 있으며, 한국 초기 선교 의료활동에 관해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지난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 제 33호로 지정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목포 대양산단 조성 사업 순조

1차 보상 계약률 42%… 내년 2월 착공

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양산단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개월에 걸쳐 1차 보상협의를 마친 결과 42.6%의 계약률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협의에서 보상대상 토지 1042필지와 지장물 407건(옥내 201·옥외 206건) 가운데 토지 463필지와 지장물 126건의 협의를 마쳤다.

금액으로는 539억원 규모이며, 오는 12월 4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또 보상 대상자 총 738명 가운데 429명은 목포시민이지만, 나머지 309명은 타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양 SPC는 다음달부터 2013년 1월까지 2·3차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 2월중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창호 SPC대표는 "1차 보상 협의 결과 50%에 가까운 실적을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2·3차 보상협의도 최선을 다해 내년 2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양동 축구센터 인근 156만㎡(47만평)에 조성되는 대양산단은 총 사업비 2909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2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54억원 등 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1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명품 김밥용 '고흥 김' 위판가 호조

kg당 741원… 작년보다 294원 높아

김밥용 김의 대명사인 고흥 김의 올해 첫 위판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고흥 해역에서 고흥 김 첫 위판이 시작된 지난 19일 kg당 741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원)에 비해 294원 높은 가격이다.

또 올해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수온이 순조롭게 하강해 전반적으로 김 생육에 유리한 상황이다.

올해 고흥 김 시설량은 6만7430책으로 지난해보다 1만3390책 늘어 마른김 기준 2000만 속이 생산될 예정이어서 7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고흥 물김 생산도 5만7000t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생산 금액은 연간 400억원 규모이나 시설량 증가와 초기 위판 단가상승으로 생산금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고흥 김 생산자들은 명품 김밥용 김 생산을 위해 '고흥 김 생산자협회'를 운영, 품질이 저하된 김은 자체 수매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과학원 관계자는 "생산자와 별개로 가공업체들도 '마른김 생산자협회'를 운영, 노후 가공시설 교체와 이물질 선별기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